

행복도시 이야기



〈2018년도 핵심 프로젝트〉

균형·상생발전

- 행정도시 기능 강화
- 도시개발전략 보완 및 발전
- 상생발전 전략 및 체계 마련

미래 스마트도시

- 산학융합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 구축
- 첨단스마트시티 선도적 구현
- 미래형 교통체계 도입 기반 조성

수준 높은 정주환경

- 품격 있는 주택·상업시설 건설
- 공공건축물 적기 건립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 체계적 건설관리 및 품질·안전 확보

친환경 문화도시

- 친환경 저탄소 도시 건설
- 문화 인프라 본격 조성
- 생활에 활력을 더하는 여가 체육시설 조성

2018 행복도시 키워드, ‘균형발전, 혁신성장 선도’ - 행복청, 2018년 업무계획 발표 -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및 국회분원 설치 지원, 지역 상생발전 선도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미래 첨단도시 구현

혁신 기업·세계 대학 적극 유치 및 설립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18년 행복도시 건설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2월 5일(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6-2동 제2공용브리핑실(203호)에서 브리핑을 개최, 2018년

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전략과제로 ①균형·상생발전 ②미래 스마트도시 ③수준 높은 정주환경 ④친환경 문화도시로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18년은 도시건설 2단계(2016~2020) 건설을 본격 추진하는 시기로, 도시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 자족기능을 본격 확충

하여 도시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복도시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도 행복청의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도시 개발전략 개선 및 인근지역 간 상생발전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한다.



행복도시 광역권 연계(안)

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앙행정기능 유관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업무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단지 조성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여건변화 및 새로운 도시건설 흐름을 반영하고, 행복도시의 균형발전 역할 강화 등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무 이관 등 행복청-세종특별자치시 간 업무 체계를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도시 건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

인근 지역과는 산업·문화·관광 등 지역별 자원을 연계·활용하는 광역적 성장 동력을 공동 발굴하여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전략 및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기술(IT)-생명공학기술(BT) 산업협력체계(산업클러스터) 구축방안과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검토하고, 인근 지자체와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광역권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상생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및 국회분원 설치 지원,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추진 등을 통해 행정도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전 기관 변경고시(행정안전부) 후 설계 착수(2018년 예산 120억 원)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국회분원은 국회 등과 협의하여 추가용역(2018년 2억 원, 국회사무처) 등을 지원한다.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국제기구 유치 기반 조성하고 국립행정

2

기업·대학 유치로 산학융합의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시티 등 미래도시를 선도적으로 구현한다.

공동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수립,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2개 외국대학(산타체칠리아, 트리니티대)의 대학 설립 절차에 착수하는 등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세종테크밸리는 4차 분양으로 벤처·강소기업을 중점 유치해 충청권 광역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고, 현재 진행 중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민간지식산업센터에 민간합동형 지식산업센터를 추가 건립하여 산학융합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국가 시범도시 선정과 연계하여 스마트시티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를 확대 구축한다. 1월 29일(월)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합강리(5-1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은 도시계획 수립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며, 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기업·전문가·시민 참여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에너지·교통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차질 없이 조성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세종호수공원 일원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의 체험구역을 설치하고, 학생·시민·신생 창업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연되는 현장을 행복도시 홍보관에 구축하여 호응도가 높은 내용은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더불어, 중앙녹지공간 PRT* 설계착수,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확대(33→54km),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위한 충전소 설치 등 미래형 교통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 Personal Rapid Transit: 2~6인 수송, 전용궤도(도로·레일)로 운행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5-1생활권)〉



위치도



조감도

3

건축물의 적기 건립 및 디자인·기능 향상,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을 통해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2018년 공동주택 공급계획대로 1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고,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다양한 수요를 위한 단독·타운하우스, 임대주택 등 맞춤형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공동체 문화 조성,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등 특색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문화거리(집현리), 비즈니스 상업거리(나성동) 및 대형쇼핑몰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상업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를 위한 숲체험원(전월산)·꿈의 놀이터 개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고운동B, 새롬동, 소담동)를 상반기에 준공하여 시민 행정편의를 높이고, 하반기 준공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예비인증 제1호) 선행관위 청사는 다른 건축물로의 사례 도입·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부순환 BRT(16km) 신규 운행, 사전요금지불시스템 구축, '교통안전 모델가로' 시범 조성 등 올해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회전교차로 10개소 확대(85→95개소)와 생활권 내부도로의 제한속도 하향(40→30km/h)을 지속 추진하고,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구축과 교통량 등의 상시점검(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복도시 공동생활권 구축을 위해 18개 광역도로망 노선(118.3km)을 순차적으로 건설하고, 조치원까지 BRT를 도입하는 개발계획 수립에도 착수한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품질·안전관리 교육, 맞춤형 현장점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방안 시행 등을 통해 품질 높고 안전한 시공을 유도하는 현장관리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4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개발, 문화예술 및 여가시설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쾌적하고 여유로운 친환경 문화도시를 건설한다.

첨단기술·우수디자인 도입을 위한 태양광 사업제안 공모 및 발전용 연료전지 도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2017년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실적을 산출하여 분석·평가하는 한편, 공동주택 등 설계공모 시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여 친환경 도시개발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박물관단지는 어린이박물관 실시설계 및 통합시설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아트센터 공사 착공 등 문화 기반시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시민여가공원(52만㎡, 2019년), 문화생태공원(89만㎡, 2021년) 등의 중앙공원, 이벤트광장(600m, 2019년), 공원형광장(400m, 2021년) 등의 도시상징광장을 적기 추진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무궁화 공원(13만㎡)을 하반기에 개장하여 국화(國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과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여가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박물관단지



아트센터

행복도시, 국내 최초 첨단 BRT정류장 설치

2.3(토) 첫차부터 스크린도어 갖춘 반개방형 첨단 BRT정류장 운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신교통형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첨단 BRT) 정류장(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BRT 이용자가 신속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첨단 BRT정류장 설치공사(시범사업)를 완료하고, 내부BRT(900번) 개통과 함께 2월 3일(토) 첫차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첨단 BRT정류장은 반개방형 정류장으로, 승객의 안전을 고려한 스크린도어(Screen door), 발광다이오드(이하 LED) 미디어, 무료 와이파이(Wi-Fi), 버스정보안내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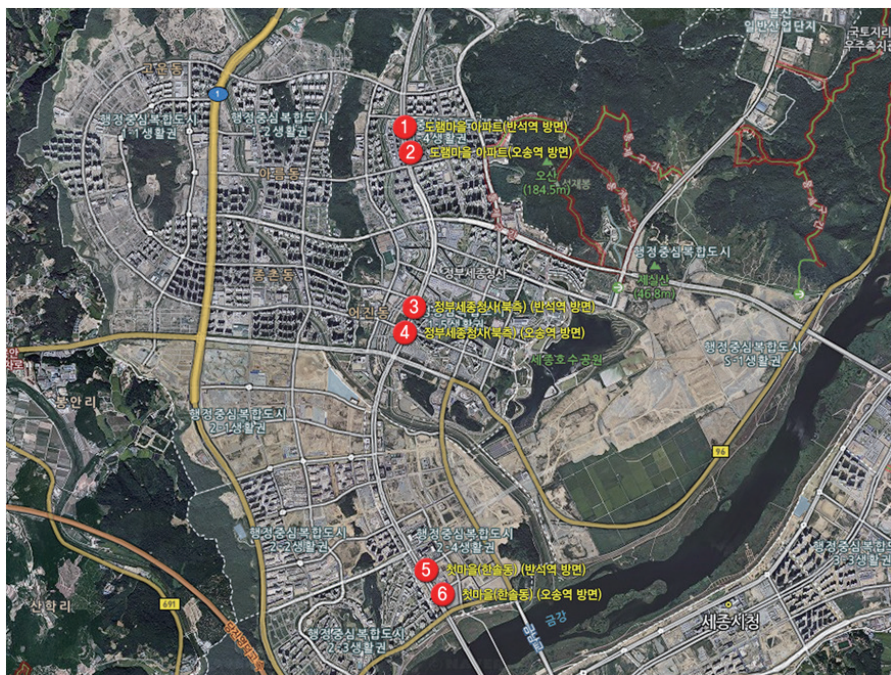
특히, 투명 LED 미디어는 날씨를 비롯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천장에 설치한 태양광에서는 정류장 운영을 위한 전기를 생산하는 등 행복도시만의 차별화를 높였다.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첨단 BRT정류장 3개소는 첫마을(2-3생활권), 정부세종청사북측(1-5생활권), 도람마을(1-4생활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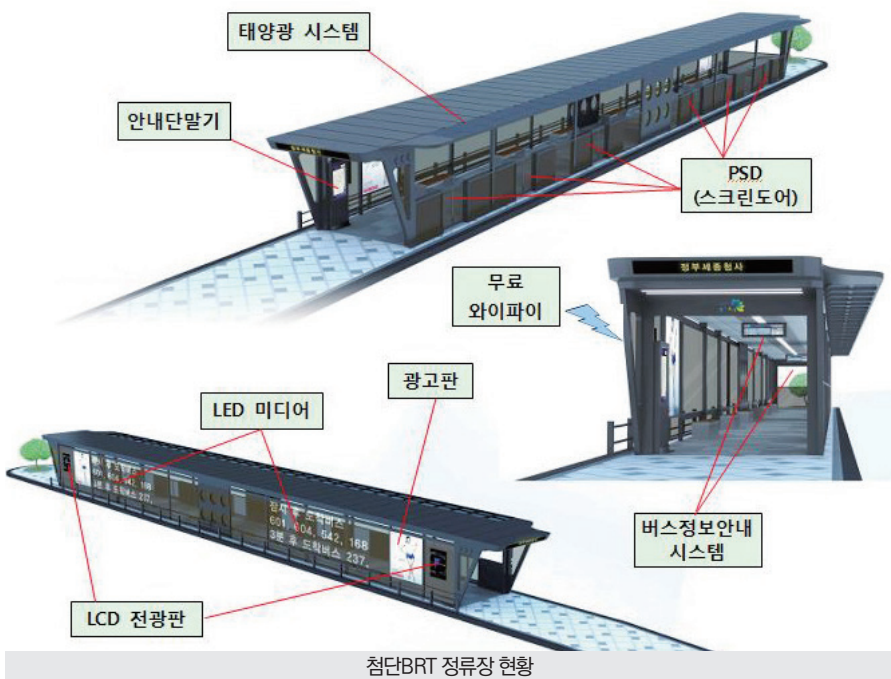
행복청은 국내 최초로 설치한 시설인 만큼, 향후 6개월 동안 이용 상황을 지켜보고 나머지 40개 정류장도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BRT의 장점인 정시성·신속성 확보를 위해 정류장에서 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정류장 요금지불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태복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첨단 BRT정류장 건설로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BRT 중심의 대중교통중심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첨단BRT 정류장 시범사업 위치도



첨단BRT 정류장 현황

행복도시에서 생활하기, 나날이 편리해진다

음식점, 병·의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2016년말 대비 40% 증가

지난 1년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생활편의시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월 29일(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행복도시 내 생활밀착형 사업장 수는 7993개소로, 2016년 말 기준 5692개소 대비 약 4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1174개소), 부동산(697개소), 커피숍(207개소), 이·미용(195개소), 병·의원(187개소), 약국(59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행복도시 입주민 증가에 따른 주민생활 밀착형 편의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의료시설은 치과 47개소(12개▲), 한의원 41개소(10개▲), 소아청소년과 16개소(5개▲), 내과 14개소(4개▲), 이비인후과 13개소(6개▲) 등으로 조사되었다.

생활권별로는 1생활권(고운동~어진동) 4692개소, 2생활권(다정동~나성동) 2246개소, 3생활권(대평동~소담동) 1055개소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새롭동(2-2생활권, 570개▲), 보람동(3-2생활권, 432개▲), 나성동(2-4생활권, 306개▲)을 중심으로 사업장 수가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2019년 말 도담동(1-4생활권)에 500병상 규모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담동(3-3생활권)에 250병상 규모의 외과전문병원이 개원함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크게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어진동(1-5생활권)에 비즈니스호텔(2019년), 대평동(3-1생활권)에 대형유통점인 코스트코(2018년)가 각각 준공되면 주민 생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태 행복청 고객만족지원팀장은 “행복도시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 인구 증가와 함께 편의시설도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다양하게 확충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Life



글 · 강인자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행복도시 10년을 돌아보면

조용한 시골 마을에 미래의 큰 세상을 품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나가고, 지금은 세상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름답고 편리한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인 행복도시는 중앙행정부처들을 웅장한 모습으로 품어 안고 있고 그 속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심장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거나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아름답고 웅장한 행복도시에 대한민국의 혼을 담고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명명되어질 때, 대한민국의 혼이 살아 숨 쉬고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상 행정수도로 명시되어짐과 동시에 행정수도답게 다른 신도시와 차별화된 시민의식을 가지며, 문화가 빛나는 도시로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라 섬세하고 짜임새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도시가 인구 1,000만의 서울같이 거대한 도시는 아니더라도 작지만 힘이 넘치는 도시, 섬세함에 감탄이 나오는 도시, 편리하여 행복한 도시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행복도시 주민들이 먼저 우리들의 삶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노력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복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빛나게 할 꿈과 희망을 품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작게는 나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앞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낼 때, 좋은 도시, 좋은 공간, 좋은 사람이 있어 진정한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멋진 축제가 펼쳐지는 곳.

평창으로 탁 떠나세요

겨울 여행의 모든 것 **평창 여행의 달** 을 검색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내일을 **꿈**을 **도**려와
희망을 **도**려와
2018년 공무원예대전

제리회 공무원 문예대전

공무원의 정서함양 및 문학적 소질계발을 통한 활기차고 창의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리회 공무원 문예대전'을 개최하오니, 문학을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3.28.(수) ~ 4.11.(수)

참가대상 현직·퇴직공무원(국가/지방직) 및 소속직원
※ 동년 작가는 해당 부문 참가 불가

참가부문 7개 부문(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시, 동화, 희곡)

작품소재 제한 없음

출품기준
- 각 부문별 2편 이내로 타 부문 중복 응모 가능
- 기존 발표작은 원고지/문학적 입상작이 아닌 순수 창작품
- A4용지 또는 원고지에 워드 또는 수기로 작성
- '15 ~ '17년 공무원 문예대전 각 부문 금상 이상 수상자는 동일 부문 응모 제한 (타 부문은 응모 가능)

부문	출품기준	부문	출품기준
시·시조	2편 이내, 분량 제한 없음	동시	2편 이내, 분량 제한 없음
수필	2편 이내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A4용지 4장 정도)	동화	2편 이내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A4용지 8장 정도)
단편소설	2편 이내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A4용지 25장 정도)	희곡	2편 이내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A4용지 20장 정도)

참가방법

구분	접수처	비고
E-mail	bokji14@korea.kr	접수마감일(4.11.) 지정 도달까지 유효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인사혁신처(공무원 문예대전 접수처)	접수마감일(4.11.) 소인분 까지 유효
방문	인사혁신처(세종포스트빌딩) 공무원 문예대전 접수처	접수시간 09:00 ~ 18:00(평일) ※ 토·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www.human.go.kr) - 세무처 - 공직자생활/인사(다문화포드)

시상내역

부문	종격	시상인원	시상금	비고
대상	대통령상	1명	300만원	
금상	국무총리상	6명	200만원	
은상	인사혁신처장상	13명	100만원	
동상	인사혁신처장상	30명	50만원	
특선	-	30명	5만원	증서
입선	-	30명	-	증서

시상 인원은 응모 출품수 및 수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과발표 2018. 5. 11.(금) 예정(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문의처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044-201-8421, 8423)

접수처 문예대전 접수처 (044-862-7029)

회전교차로에서의 올바른 통행방법

회전교차로는?

- 신호가 아닌 양보 등으로 운영되어 대기시간이 짧아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저속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행복도시에 총 57개소 회전교차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횡단보도를 주의해 주세요.

들어올 때 나갈 때 2번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보행자 통행 후 통과하세요.

좌우에 차량이 오는지 충분히 살피고 횡단하세요.

올바른 통행방법

1. 속도를 줄여 주세요. (30km 미만)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세요

2.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해 주세요. 회전교차로 내에 진행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선에서 대기하여 회전차량 통행 후 진입하세요

3. 나갈때는 방향지시등을 켜 주세요. 나갈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다른 차량에게 알려주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경찰서 LH

밀마루 전망대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 이용안내

매일 9:00~18:00, 연중무휴
(설날, 추석 당일은 14:00부터 운영)

밀마루 전망대

위치_세종시 도음3로 58 (세종시 어진동 산3)
문의_044-862-8845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

위치_세종시 어울로 247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551-6)
문의_044-867-791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